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2-2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3년 종교인식조사: 종교 효능감 및 영향력

2023. 12. 27.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1 종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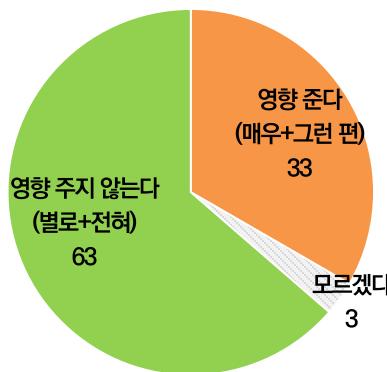
##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3%, 1년 전과 큰 변화 없어 개신교 신자는 79%, 불교 신자는 42%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 준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3%이다.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60%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6%만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모두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종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79%가,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55%가, 불교 신자 중에서는 42%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이어 개신교-천주교-불교 신자 순으로, 삶에서 종교의 영향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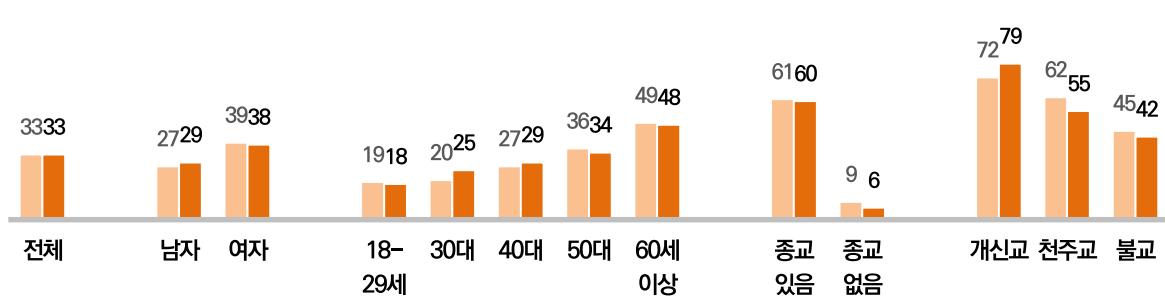
###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3%, 1년 전과 큰 변화 없어 개신교 신자는 79%, 불교 신자는 42%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 준다'

(단위 : %)



####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응답

■ 2022년 ■ 2023년



질문 : 종교가 귀하에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느끼나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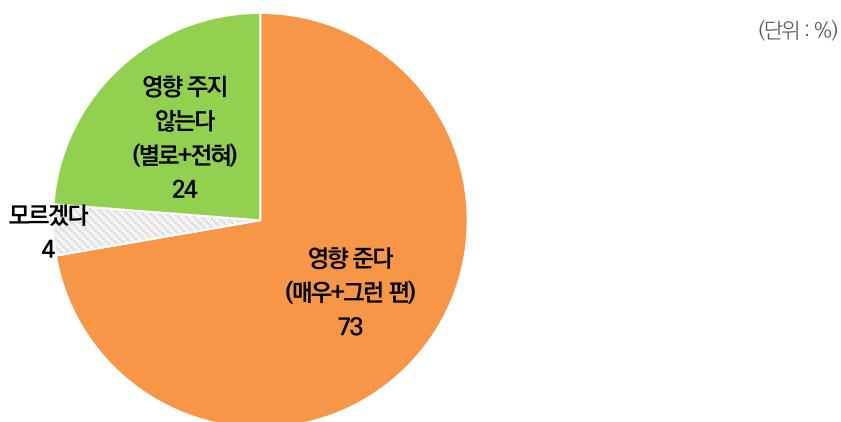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 2023. 11. 24 ~ 27

##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73%, 1년 전 대비 3%포인트 감소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10명 중 7명(70%)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 미친다' 평가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높지 않으나,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데에는 다수가 동의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76%)보다는 3%포인트 낮으나, 전체 응답자 중 73%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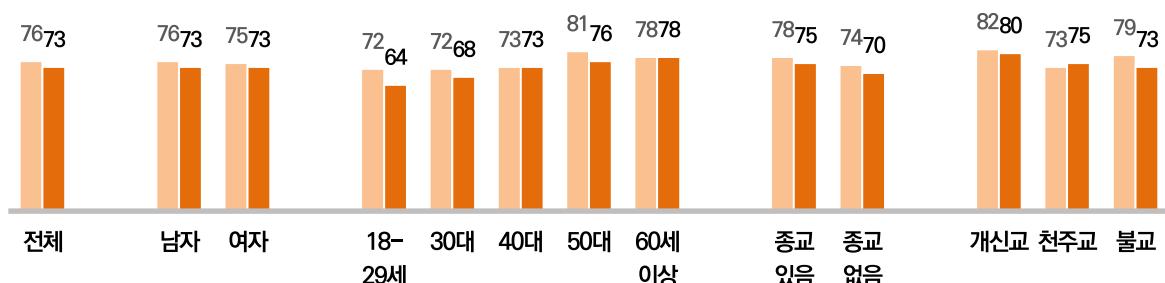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75%)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70%)도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신교 신자(80%), 천주교 신자(75%), 불교 신자(73%) 모두 10명 중 7~8명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 73%, 1년 전 대비 3%포인트 감소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10명 중 7명(70%)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 미친다' 평가



###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응답

■ 2022년 ■ 2023년



질문 :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 2023. 11. 24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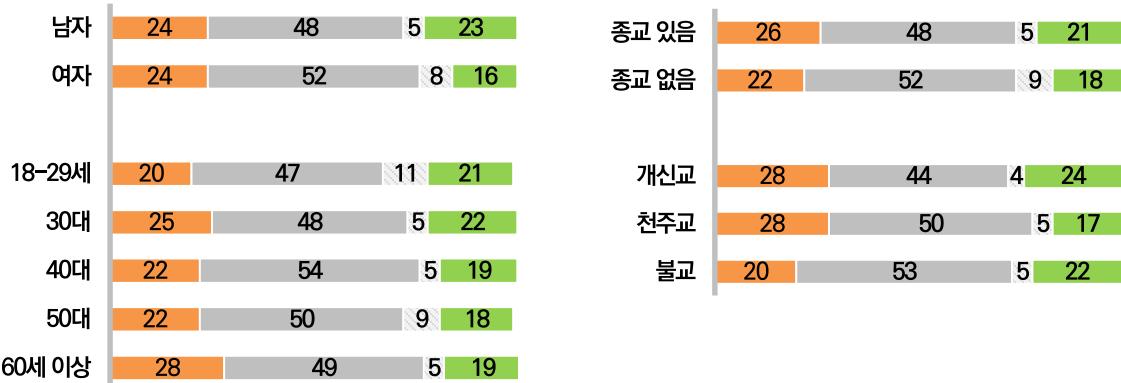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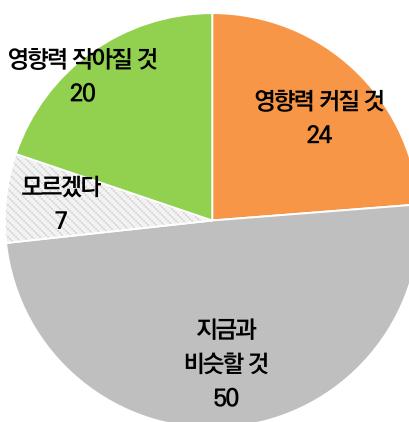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50%, 커질 것 24%, 작아질 것 20%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절반(50%)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결과(56%)와 비교하면 6%포인트 하락한 것이나, 여전히 종교가 현재 영향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종교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24%로 지난해 대비 3%포인트 높고, 반대로 ‘지금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지난해 대비 3%포인트 많은 20%이다. 성별이나 연령대,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가 현재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지금과 비슷할 것 50%, 커질 것 24%, 작아질 것 20%

(단위 : %)



질문 : 앞으로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2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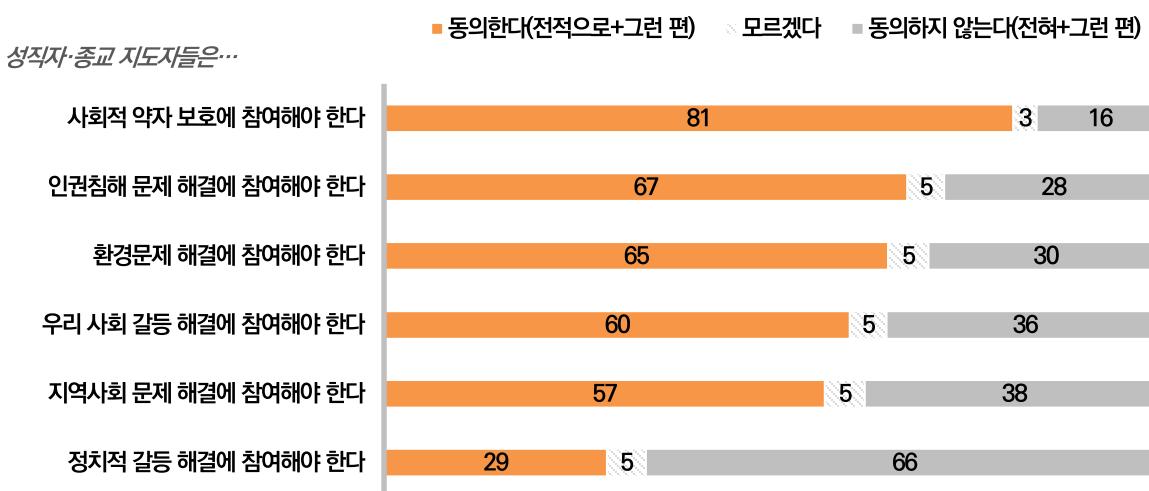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81% 정치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29%에 그쳐

성직자 혹은 종교 지도자는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할까? 종교가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는 가치를 설파한다는 점과, 성직자·종교 지도자가 도덕적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반면, 종교의 정치적·사회적 개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사회 문제 해결을 맡기고, 종교는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돋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어떨까? 성직자·종교 지도자가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우세하다.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81%)는 의견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참여(67%),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65%),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참여(60%),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57%)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정치적 갈등 해결에 대해서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29%에 불과하다. 성직자·종교 지도자가 정치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나, 정치적 사안 외에 다른 사회 문제의 해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81% 정치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29%에 그쳐

(단위 : %)



질문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이,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대체로 높아

성직자와 종교 지도자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40대를 기점으로 갈린다. 30대 이하보다는 40세 이상에서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또한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비신앙인보다는 신앙인에게서 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이,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 대체로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성직자 및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전체	(1,000)	81	67	65	60	57	29
성별							
남자	(495)	81	66	60	61	55	29
여자	(505)	81	69	69	59	58	28
연령							
18~29세	(162)	77	56	50	54	51	22
30대	(149)	75	57	57	55	51	22
40대	(180)	82	70	64	59	56	27
50대	(195)	81	70	69	61	61	35
60세 이상	(314)	84	74	73	65	59	32
이념성향							
진보층	(245)	91	84	79	72	70	37
중도층	(351)	81	67	62	59	56	26
보수층	(358)	76	59	61	55	50	28
모름/없음	(46)	61	49	35	35	39	7
종교유무							
종교 있음	(501)	85	72	70	65	60	32
종교 없음	(499)	76	63	60	55	53	26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196)	80	68	68	63	63	30
천주교	(126)	94	80	70	69	59	34
불교	(163)	87	72	72	65	59	33

질문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 동의하는 편이다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11. 24 ~ 27

### 3 종교의 효능감

#### 종교를 믿는 것, 안정감 얻는 데 도움된다 77%, 긍정적 감정 갖는 데 도움된다 72% 종교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큰 차이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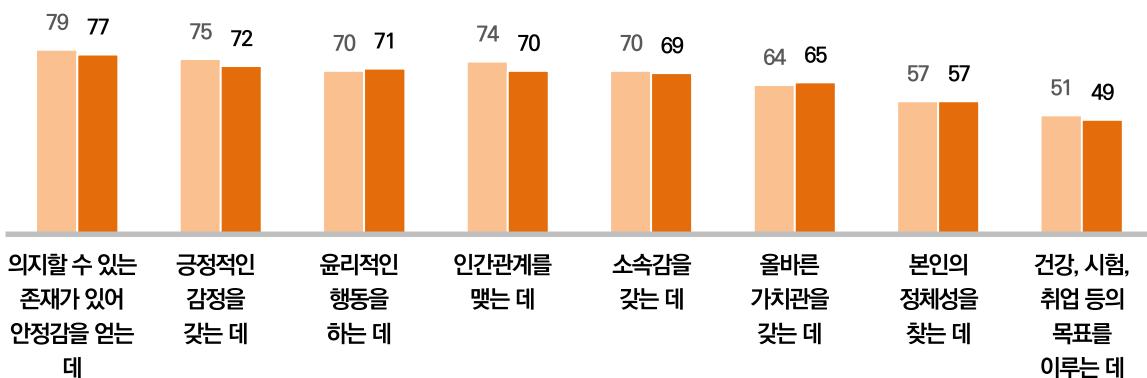
종교를 믿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물어보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77%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72%)’,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71%)’, ‘인간관계를 맺는 데(70%)’, ‘소속감을 갖는 데(69%)’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 10명 중 7명 혹은 그 이상이다. 반면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57%)’, ‘건강, 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49%)’ 종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종교의 효능감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 효능감 또한 높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 또한 많아지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종교를 믿는 것, 안정감 얻는 데 도움된다 77%, 긍정적 감정 갖는 데 도움된다 72% 종교 효능감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큰 차이 없이

(단위 : %)

■ 2022년 ■ 2023년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 2023. 11. 24 ~ 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 효능감 높게 평가

(단위 : %)

사례수 (명)	'종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	인간관계를 맺는 데	소속감을 갖는 데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건강·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전체 (1,000)	77	72	71	70	69	65	57	49
성별								
남자 (495)	74	70	71	66	64	63	56	45
여자 (505)	80	73	72	73	75	67	59	53
연령								
18~29세 (162)	70	65	62	64	70	46	42	31
30대 (149)	71	66	65	62	66	56	43	42
40대 (180)	78	71	71	67	68	69	57	48
50대 (195)	77	69	68	71	66	63	58	52
60세 이상 (314)	84	81	81	78	74	77	72	61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 효능감 높다고 인식**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목표 달성, 정체성 찾기에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응답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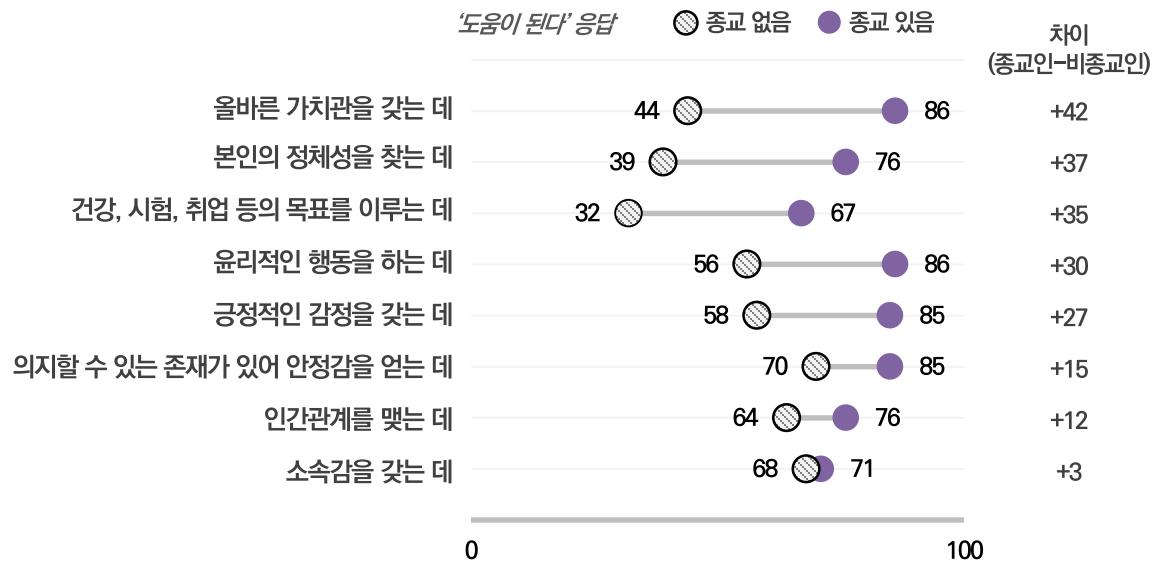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의 효능감이 높다.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86%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44%만이 동의해 대조적이다.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종교인 76%, 비종교인 39%), 건강·시험·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종교인 67%, 비종교인 32%)는 인식 또한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차이가 크다.

비종교인 중에서도 3명 중 2명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70%), 소속감을 갖는 데(68%), 인간관계를 맺는 데(64%)에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종교인도 각각 85%, 71%, 76%가 동의해,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 효능감 높아

올바른 가치관 형성, 정체성 찾기, 목표 달성 등에서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간 차이 커

(단위 : %)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불교 신자의 종교 효능감은 다른 종교 신자에 비해 낮은 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 중에서는 불교 신자의 종교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불교 신자도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와 동일하게 다수가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데(80%),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80%) 종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반면 소속감을 얻는 데(54%), 건강·시험·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58%), 인간관계를 맺는 데(59%)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50%대로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해 낮다.

## 불교 신자의 종교 효능감은 다른 종교 신자에 비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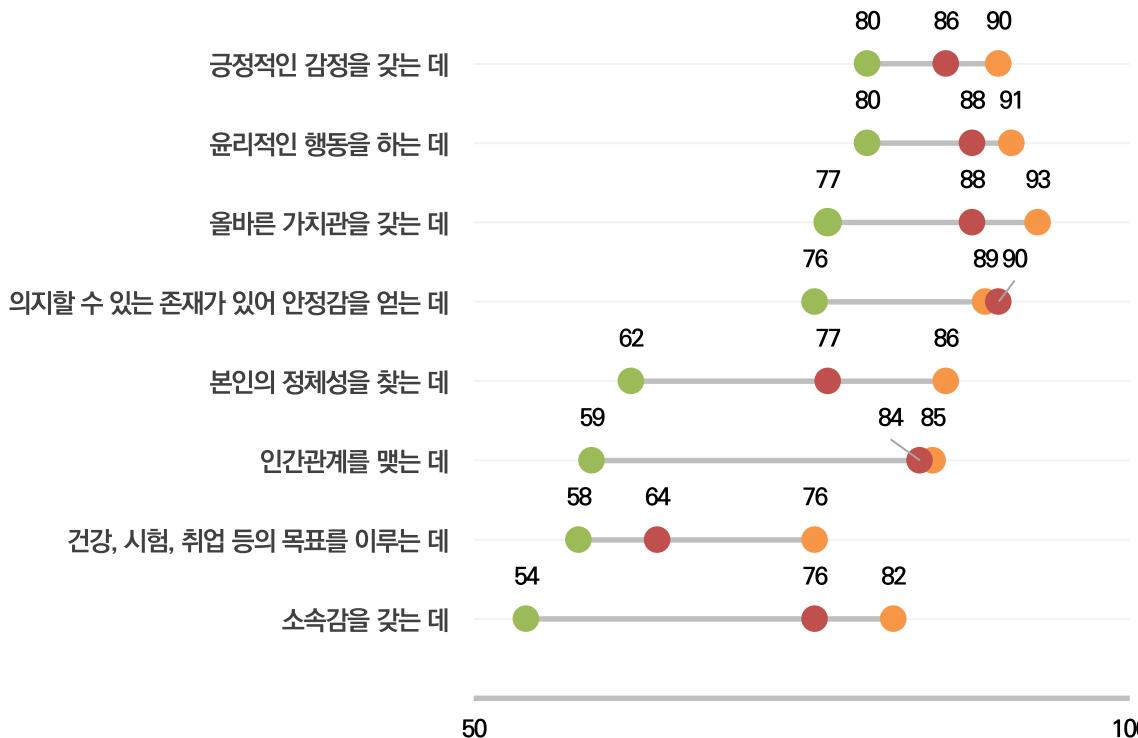
(단위 : %)

'도움이 된다' 응답

불교

천주교

개신교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개신교 신자 196명, 천주교 신자 126명, 불교 신자 163명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li></ul>
표집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1월 기준 약 89만명)</li></ul>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li></ul>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000명</li></ul>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math>\pm 3.1\%</math></li></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li></ul>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li></ul>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사요청 6,153명, 조사참여 1,364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6.3%, 참여대비 73.3%)</li></ul>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3년 11월 24일 ~ 11월 27일</li></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li></ul>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